

: 우리가 함께 지켜내어야 할 절멸 위기의 제주어¹ :

1. 제주어는 세계 유산

제주도는 섬 자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지닌 천혜의 아름다운 섬이다. 온통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제주만이 가진 풍부한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전승되고 있다.

제주어는 일찍 한반도의 언어와는 상당히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된 시간을 뛰어넘어 육지와와의 이동과 이주 그리고 접촉이라는 교섭에 의해 점차 동화하여 제주방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질적인 언어에서 동질적인 언어로 통합되어 형성된 제주방언에는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상상력과 토속적 정보가 아로새겨져 있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상고시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지만

¹ 본고는 2019년 11월 11~12일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한 「절멸위기의 제주어 보전과 부흥 방안, 세계언어학자들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한 필자의 원고이다.

아직 미명의 어둠과 신비 속에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국신화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국신화의 시조의 탄생과 달리 남방 계열에서 보이는 고 · 부 · 량의 3성신이 땅에서 출현하여 바다를 건너온 3신녀와 혼인을 맺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제주의 건국 신화는 16세기 무속 제사로 연결될 만큼 지속적으로 추승되어 온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명칭은 고대부터 ‘州胡’, ‘耽羅’, ‘毛羅(托羅)’, ‘儋羅’, ‘涉羅’, ‘耽牟羅/耽毛羅’ 등의 다양한 표기로 남아 있는 제주는 상고시대에 독립 국가로 존재하다가 5~6세기에 백제와 신라와의 접촉에 이어 복속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주의 대외 교류는 대체적으로 서부 마한 세력에서 전남 동부권으로 그리고 소가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한반도와의 문화적 통합화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된다.² 특히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남아있는 ‘주호州胡’의 기록을 참고하면

“또 주호州胡가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언어는 한韓과 같지 않다.”³

라고 한다. ‘주호’는 ‘오랑캐 마을, 섬’이라는 중국 시각에서 부여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이병도(1976:297-299)나 진용하(2002:93-95) 교수는 당시 제주를 ‘단주亶州/澶州’로 기록한 『삼국지』나 『후한서』 기록에 근거하여 중국 사람들이 원주민 집단과 혼동하여 외래자나 침략 거주 집단

² 김경주,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구조와 대외교류」,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경인문화사, 41~95, 2019. 참조

³ 제주방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고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유네스코 국제표준 화기구ISO에서 제주방언을 언어로 분류했다고 해서 곧 제주방언은 한국어와 독립된 언어라는 것이 학계의 주류 의견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국의 민방언이나 우 방언도 ISO 639에 의하면 별개의 언어로 인정되지만, 중국어의 하위 방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을 낮추어 불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단주(檀州/澹州)’가 반드시 제주를 지칭한다는 근거도 불명료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은 제주 섬 내에 굳이 원주민 집단과 구분한 외래 이주 집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해서 명명할 뚜렷한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이 기록에 근거하여 상고시대의 제주어의 현상은 삼한 계열과는 분명히 달랐음을 말해주는 매우 소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⁴ 역으로 현재의 제주방언은 그동안 육지와와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상당한 동질화가 진행되었지만 표준어 교육이 시행되기 이전을 고려해 보면 개별 언어적 차이였는지 방언적 차이였는지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장창은(2019:111)이 ‘주호’는 삼한 가운데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마한 지역인 전남 해안지역으로 추정하여 제주가 한반도와의 교역의 확장으로 문화나 언어가 이질적인 것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오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곧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주호국’에서부터 고구려 문자명왕 13년(504)조의 ‘섭라’, 백제 문주왕과 동성왕주의 ‘탐라’, 신라 문무왕과 애장왕주의 ‘탐라’에 이르기까지 교류의 역사를 통해 제주의 언어 또한 변화의 부침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제주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몽골 등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교류사의 흔

⁴ “제주방언이 언제부터 본토 한국어와 의사소통이 안 되었는지 그 정확한 근원은 찾기 힘들지만, 제주방언이 본토 한국어와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는지 정사 삼국지와 후한서를 보면 주호국(탐라국의 전신으로 추정)의 언어가 한(韓)과 다르다는 얘기가 언급되어 있다. 적어도 삼국 시대 이전시기부터 타 지방 언어와 크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이다. 이후 탐라국이 건국된 후에는 고대 문헌자료가 미비해서 기록을 찾아보기 쉽지는 않은데, 자료가 극히 부족하지만 가령 『삼국사기』, 『신당서』 등에는 7세기의 탐라국왕 이름으로 ‘유리도라(儒李都羅)’, ‘도동음(徒冬音)’ 등이 등장하는데 같은 시기 백제인이나 신라인들의 인명과는 그 체계가 다르다. 한반도에서 떨어진 지리적 특성 상 백제, 신라, 고려 순서로 속국이 되고 편입되기 전까지 제주방언은 탐라국 시대 중에도 독특한 언어학적 특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위키사전> 참조

적을 남기고 있다.⁵ 1105년 고려 숙종 시기에 탐라국은 탐라군으로 개칭되면서 사실상 속국 지위가 박탈되고, 본토에 있는 중앙정부의 통제권에 들어왔다. 다만 이후에도 탐라국왕은 성주로 호칭이 바뀌고 대를 이어 계속 세습되었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계속 허용되었다. 몽골 제국과의 여몽전쟁 시기에는 삼별초가 제주도를 점령하여, 최후 항전지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몽골 간섭기에는 말을 키우기 좋은 환경에 주목해 원나라의 직할령인 탐라총관부가 설치되어 요양행정 산하에 들어갔다. 그 동안 탐라국은 주변으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잦은 수탈과 간섭에 시달렸다. 원나라는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제주의 정치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주로 병사)의 이주를 통해 제주의 사회,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방언의 많은 어휘, 특히나 목축 관련 용어는 중세 몽골어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의 민속 문화의 중요성과 함께 그 공간 내부에 생존 하던 사람들의 지식 정보를 교류하는 언어는 매우 소중한 변화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주방언의 소중함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이다. 언어학적인 자산으로서 제주방언은 그 기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와 변동을 탐색하는 데 매우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방언의 어휘나 문법형태소나 조어법이 육지 방언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동일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은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절멸위기 5단계에 진입한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과정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⁵ 이유천, 「탐라의 대일 교섭」,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경인문화사, 195~227, 2019.
최희준, 「탐라국의 대일교섭과 항로」, 『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경인문화사, 231~261, 2019.

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절멸위기에 처한 제주방언의 조사 채록과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와 함께 그리고 남북의 통일언어 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 방언조사의 추진을 감당하기 위한 <국립방언원> 설립 추진과 그것을 제주에 유치할 것을 제안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 순간이 우리가 함께 절멸 위기의 제주방언을 지켜내기 위해 행동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다.

2. 언어 다양성에 대한 인식

21세기에는 최소한 세계 언어의 절반 정도가 절멸해 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무슨 일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침묵하게 되는 걸까? 지난 세기 서방 유럽의 몇몇 국가 언어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등 적도 하반부에 살던 수많은 원주민들의 언어를 포식glottophagie하였다. 변두리 토착민의 언어는 지구에서 한번 없어지면 대체가 불가능한 천연 자원과도 같은 것이다. 언어의 다양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우리가 끌어와 쓸 수 있는 지적 기반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인류의 환경 적응력은 현저히 감소된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언어와 방언이 두려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절멸해 가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이런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세계적인 언어의 식민지화와 그 이후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변방의 토착민들의 언어를 포식해 온 언어 식민주의의 증거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케냐의 작가 응구기와 시옹오는 토착민의 언어인 키쿠유어로 글을 쓴다는 이유로 투옥을 당했으며, 우비크족의 대량 학살로 말미암아 우비크어가 절멸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2백 년 동안 언어의 절멸을 초래하는 과정이 가속화되었는데 언어의 절멸은 다양한 생물 종의 절멸 위

협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당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물 종의 다양성이 무너지면 지구의 위기를 예견할 수 있듯이 언어 다양성의 절멸 현상도 인류의 지적 문명의 재앙이자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이나 부족의 언어를 조직적으로 멸시하고 짓밟는 언어 식민지화에 대해서 일말의 문제점도 의식하지 않았던 언어학자들은 이제 지난 시대를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어도 이미 잠재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더 큰 언어로부터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 사용자가 줄어들 징후를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크리스탈이 쓰고 권루시안이 옮긴 『언어의 죽음Language Death』(이론과실천, 2005:42)에서는 언어의 위기에 대해 스티븐 웨이 분류한 5단계 분류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근거한다면 외국어가 물밀듯이 들어와 지배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어는 점점 죽어가는 언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외래어와 외국어의 어휘 침식lexical erosion과 영어 공교육 강화 움직임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언어학자들이 지난 세기 동안 전 세계의 변두리 국가나 부족들의 언어가 절멸하는 양상과 속도로 금세기에는 경악할 만큼 더욱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언어의 반 이상이 절멸하리라 예상한다. 더군다나 한국어의 일부인 제주방언의 절멸은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 토착인들은 과연 제주방언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제주방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당당하게 문학작품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3. 언어 절멸의 진행

언어의 식민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영어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영어로 지배할 기운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영어 그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한 변이형을 가진 변종 Variation이나 혼종의 영어로 둔갑하여, 지난 세기에 죽어간 토착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의 자리를 무서운 속도로 다시 메우고 있다.

특히 지난 200년 동안 식민 지배, 벌목, 채광,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언어의 절멸을 초래하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언어의 절멸은 다양한 생물 종의 절멸 위협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당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물 종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지구의 위기를 예견할 수 있듯이 언어 다양성의 절멸 현상은 인류의 지적 문명의 재앙이자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지배 언어가 피지배 언어를 포식하는 언어 식민주의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 안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도시 언어(표준어)가 변두리 언어(방언)를 포식하는 관계가 성립된다. 곧 도시 언어가 지배 언어로, 변두리 언어가 피지배 언어의 관계로 대응된다. 한 국가 안에서도 중심의 공동체가 변두리 공동체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이론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언어 지배의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4. 언어 절멸에 대한 대처

위험에 처한 언어의 보존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는 그 언어 사용자들이 문자를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자에 대한, 그리고 그 문자에 의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세종대왕 문해상은 두 번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맹퇴치 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프로젝트와 위험에 처한 언어 보존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위험에 처한 언어의 보존을 위해서는 구어를 문어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위험에 처한 언어는 언어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가 없다. 대한민국은 위험에 처한 언어, 특히 동북아지역의 언어에 대한 전사 및 보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더 확대할 의사가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문화 다양성 및 언어 다양성에 관한 여러 가지 선언을 채택하고 국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970년 이후 매년 개최해 온 ‘지구의 날’과 같은 활동을 통해 환경 위기를 일반인에게 알려온 방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언어 절멸의 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간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경 재해를 불러오듯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과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 종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 그 중 가장 명백한 점은 절멸한 언어는 대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작은 규모의 군집 사회를 보존하고 새로 조성하는 노력이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절멸 위기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⁶

- ⁶
- 1981년 유럽 의회에서 가에타노 아르페(Gaetano Arfé)가 ‘지역 언어, 문화 및 소수 민족의 권리를 다루기 위한 공동체 헌장’을 채택
 - 1992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개최된 국제언어학회(International Linguistic Congress)에서 소수언어 보호를 위한 헌장 채택
 - 1992년 유럽 의회가 ‘지역 또는 소규모 언어들을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국제 협약 채택
 - 1992년 유네스코와 국제연합에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들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f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채택
 - 1990년 미국에서 ‘아메리카 토착 언어를 쓰고 익히고 발전시킬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의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노력은 새천년을 열면서 세계적인 화두로 논의되었으나 국가우월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다시 경쟁적인 국가이기주의의 목표로 전환된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생태와 언어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국가별 언어와 생태 다양성 보존에 대한 노력들이 아직은 미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지만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5. 우리나라에서 방언의 절멸

일제의 지배 방식으로써 ‘국어’와 ‘민족’이라는 이념이 필요했듯이 민족주의자들은 저항을 위해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념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식민주의적 방식으로 표준어의 설계와 그 당위성을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 들의 자유권을 보존,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 통과
- 1992년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도와 그들이 자기 언어들의 생존과 지속적인 생명력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법안’ 통과
- 1993년 11월 유네스코에서 ‘위기 언어 레드북 Red Book of Endangered Languages’ 채택
- 1995년 동경대학교에서 위기의 언어들에 대한 ‘국제 정보 센터 International Clearing House for Endangered Languages’ 개설
- 1995년 미국에서 ‘위기 언어 기금 Endangered Languages Fund’ 설치
- 1995년 영국에서 ‘위기 언어들을 위한 재단 Foundation for Endangered Languages’ 설립
- 1995-2004년 일본 오사카가쿠인대학교 절멸 위기의 환태평양 언어 보존
- 1996-1998년 헬싱키대학교 핀우그르 어 데이터뱅크 구축
- 1998년 동경외국어대학교 구어 카라임 어(튀르크어족) CD 프로젝트
- 2000년 미국 오스틴대학교 라틴아메리카의 토착어 아카이브 구축
- 2003-2006년 한국 알타이언어학회의 알타이 어 현지 자료조사
- 2007년 일본 아이누 문화 연구 재단에서 아이누 어 보존
- 200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가장 먼저 방언에 관한 조례인 <제주방언 보존 및 육성 조례> 제정
-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에서 ‘언어의 공통성과 다원성’을 주제로 채택

함께 공유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화의 환영으로 경성京城(-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가 성립되었고 다른 모든 방언은 경성 표준어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표준어의 방언 포식이 시작되었다.

모든 부족 또는 민족의 토착 언어나 방언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다. 부족 또는 민족의 토착 언어나 방언에는 그들 부족이나 민족의 삶의 지혜와 생존 전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낀 감정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언어와 관련해서 사회적 결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값진 자산이다. 국어와 방언은 모두 고유한 어휘, 문법, 그리고 음운 체계를 가지므로 국어와 방언 사이에는 국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어와 방언에 차이가 있다면 ‘지위 획득’이라는 면에서 국어가 방언보다 존중된다. 국어가 규범적인 언어인 표준어와 일치한다는 편견은 방언이 국어가 아니라는 오해를 낳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어’는 ‘국가어’이다. 표준어가 국가어인 ‘한국어’와 문화어가 국가어인 ‘조선어’를 합치면 민족 단위의 하나의 ‘국어’가 될 수 있다. 민족어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국가어’를 합쳐야만 진정한 하나의 통일된 ‘국어’라는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다.

술한 토착 방언이 죽어간 묘지 앞에서 한국 표준어만 생존할 수 있을까? 다시 표준어를 포식할 거대한 자본 언어인 영어가 입이 큰 베스처럼 입을 벌리고 표준어를 포식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어가 토착 방언에 미치는 언어폭력과 포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일부 학자들은 국어는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방언들의 총합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어의 특질은 개별 방언들이 갖는 공통적 특질로 구성된다는 대단히 목가적인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부 방언학자들에 의한 이러한 논점은 방언들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게 역사적으로 읽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어 식민화와 언어 포식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일종의 지적 테러리즘을 불러일

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 모국어를 관리하는 정부가 두 개 있다는 현실은 우리들의 모국어를 항상 반쪽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다시 폭력의 수준으로 우리들에게 노정시키고 있다. 김형수(2006)는 “남과 북에서 서로 대결 의지를 높여 온 위정자들이 반공 정책과 반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한 결과 억압에 의한 언어의 자살 현상도 극심했다.”⁷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심에 자리한 표준어와 문화어, 그리고 변방에 자리한 방언들과 죽어가는 토착 방언들 간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멸종으로 치닫는 생태계의 현상과 같이 죽어가는 습지, 물고기, 새, 사라져가는 나무와 들풀처럼 변두리의 방언도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소수 언어인 방언의 미학을 되살려 내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주의 ‘비즈니스 문명’의 유통 질서의 세계를 거꾸로 되돌려, 버려진 것, 변두리의 것, 소외된 것들에 대해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발전이든 그 발전은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오직 다양성이 보장될 때만이 진보적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단일화하고 획일화해 나가려고 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한 언어는 한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 선결 조건이다. 빌려 온 외국 언어에 어떻게 우리의 고유한 삶과 경험의 무게를 온전히 잘 실어 낼 수 있을까?

6. 생태계 보존의 열쇠는 언어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방언학자(언어학자)들이 우려

⁷ 김형수, 「변두리가 중심을 구원할 것이다 - 한국 문학이 아시아 연대를 꿈꾸는 이유」, 『ASIA』, Vol 1, No.3, 16~17쪽, 2006.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방언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크리스텔(2000/2005:36-38)은 한 언어가 살아남는가 사라지는가 하는 인자를 세 가지로 가정하고 있음을 본다. 하나는 가정(집)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그 비율이 낮으면 그만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둘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평균 나이인데, 평균 나이가 낮을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평균 나이가 높을수록 앞날이 불투명한 언어라는 것이다. 셋은 언어 손실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비록 어릴 때는 가정에서 그 언어(모국어)를 썼지만, 또래 집단의 압력이나 취업 시장의 요구가 강할 경우 지배 언어를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경우 모국어는 손실되는 언어로 이해된다. 그러한 언어 손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언어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그 반대라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됨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의 방언에 대입해 보면,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사용한다 해도 그것은 이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것은 학교 교육,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표준어에의 노출이 그 주된 이유이다. 그리하여 설령 어린 시절에는 가정에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방언을 듣고 말했다 해도, 10대가 되면 학교 교육, 또래 집단의 압력 등으로 방언 사용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방언은 현재 킹케이드(1991:160-163)가 말하는 ‘위기에 처한endangered 언어’⁸이거나, 뎀(1998:192)이 말하는 ‘위기에 처한endangered 언어~심각한 위기에 처한seriously endangered 언어’이거나, 밤

⁸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만, 상황이 우호적이고 공동체의 의지가 커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언어.

그보세(1997:22)가 말하는 '박탈된(deprived) 언어'에 속할 수밖에 없다.⁹

이 세계가 어떻게 하나의 생태, 하나의 언어집단으로 동질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언어로부터 생태계 삶의 방식이 동질화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 상황이 바로 인류의 종말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토착적 지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필리핀 하누우족은 컴퓨터 언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들은 450종 이상의 동물과 1천5백종 이상의 식물을 구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은 'CUT'에 대응되는 '썰다'류의 동사가 무려 45가지로 구분된다. 한식의 칼솥씨가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발리섬에 사는 발리인들의 사원 두레 조직으로 이루어진 농사 관계 체계는 매우 독특하다. 아시아 은행이 추진한 현대화된 계획이 그들의 토착 지식 체계를 무시하고 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 다양한 언어는 그들 나름대로의 자원과 관행을 가진 다양한 사회 조직망 속에서 진화되어 온 것이다. 바로 그들의 관행과 자원을 침탈당할 때 그들의 언어는 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네스코에서는 제주방언 역시 절멸 위기의 언어로 진단한 바가 있다.

7. 제주지역어의 생태 지수 측정

2007년 국립국어원에서는 제주지역어의 생태지수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도에 그 보고서를 제주대학교 강영봉 교수가 주관하여 완성하였다. 이 보고서의 조사 방법으로는 생물종의 수를 세는 단순한 방법보다 다양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측정 방법이 필요하듯이 생태계의 풍부함을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도 종의 명명 방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세대별 인지율, 이해율, 사용률을 조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대상이 절멸한 경우, 대상

⁹ 세 학자의 용어와 그 뜻은 크리스털(2000/2005:41-43)에서 다시 인용한 것이다.

이 대체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인지율, 이해율, 사용률로 구분하여 세대별 구분에 따라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제주도어로 된 동식물 이름을 선정하고 그 제주방언을 대상이 존재하는가 혹은 그 대상이 절멸하였는가 또는 그 대상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는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연령별 1군(10~20세), 2군(20~40세), 3군(40~60세), 4군(6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대상에 대한 인지율, 곧 사물을 본 적도 없지만 대상을 알고 있는 경우, 제주방언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인지율 조사와 대상을 확인한 적도 있지만 제주방언을 한 번도 사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이해율에 대한 조사, 대상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방언으로 말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설문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대표적인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절멸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사례를 먼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 문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어휘는 ‘굴레, 손콧, 녹대(쉬엄), 가달(석), 고지, 텅유지’ 등의 조사 결과는 다음 같다. 이들 문헌어는 전체적으로 ‘굴레(13.3%), 손콧(37.9%), 녹대쉬엄(10.0%), 가달석(0.4%), 고지(7.5%), 텅유지(45.4%)’이다. ‘텅유지’가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요즘도 일반 가정에서 ‘텅유지’를 이용하여 차를 만들거나 제수祭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다. ‘텅유지’라는 어휘에 대한 사용률과 이해율에 대한 조사 통계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표 2〉 강영봉 외,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2008-01-54, 2008.

성 별	사용(%)	이해(%)	예전사용(%)	이해못함(%)	모름(%)	계
60대	65.0%	20.0%	13.8%	1.3%	0.0%	100%
40대	53.8%	27.5%	8.8%	6.3%	3.8%	100%
20대	17.5%	16.3%	2.5%	10.0%	53.8%	100%
합 계	45.4%	21.3%	8.3%	5.8%	19.2%	100%

연령에 따른 사용률과 이해율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텅유지’는 ‘당나라 유지(唐柚子)’인데 관습적으로 제주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어느 정도 사용률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해율은 거의 바닥세이다. 60대 이상에서 65.0%, 40대 53.8%, 20대 17.5%가 사용하며, 40대 3.8%, 20대 53.8%가 모르고 있다. 여자의 사용 빈도가 남자보다 10.8% 높은 편이다. 2010년 들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반말 어미와 일부 특정 어휘를 제외하고는 사투리가 거의 전멸한 상태이다. 덕분에 경어로 따지면 표준어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제주시 같은 도시 지역이나 외래인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 제주방언 절멸 현상이 두드러진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사용하는 것 외엔 표준어 말씨랑 차이가 거의 없다. 가령 음식점에 예약 전화를 할 때도 그냥 표준어를 쓴다. 그리고 산북이 산남보다 사투리 사용 빈도가 덜하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8~90대 세대는 거의 외국어 수준의 제주방언을 썼고, 그 아래 5~60대는 토종 제주방언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점점 사용을 덜 해가고, 지금 2~30대에 와서는 전술했듯 몇몇 단어와 어미 정도만 빼면 표준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대로 가다간 거의 표준어화된 지금 젊은 층의 제주방언마저 먼 미래엔 지금 우리가 노인분들의 제주방언을 듣는 것처럼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분석할 경우 제주방언의 절멸 과정을 시간별 계층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하게 생태 환경의 변화 과정에 대한 미시적 사항의 기록보존이 가능하다. 제주방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방언의 자료를 보존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오디오 자료와 이를 전사한 전사 자료, 비디오 자료, 나아가서 대상물의 보존까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보존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가정 언어로, 나아가서 학교 교육 언어로서 사용자의 수와 그 환경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제주방언이 절멸

위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절멸되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여 기록 자료로 수집 보존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주방언을 보존하는 일은 관련 학자와 제주 지역민들의 힘이 합쳐질 때 가능한 일이다.

8. 왜 제주방언이 중요한가?

첫째, 지금까지 방언은 지리적으로 계기적인 연속체라는 가정 아래에서 공통언어에서 다양하게 분화 내지는 분지된다는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다. ‘접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언어나 방언이 접촉하여 평준화 leveling가 일어난 새로운 혼합형의 방언체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바로 제주 방언은 다른 언어에서 혹은 상당히 이질적인 방언에서 시차성을 준 접촉에 의해 새로운 변종으로서 제주방언이 형성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제주방언은 매우 소중한 방언일 수밖에 없다. 물론 서부독일어와 네델란드어와 같이 접촉과 반대가 되는 고립의 관계에서도 방언의 분화와 언어의 단절이 생겨날 수 있지만 제주방언은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언어지리적 연계가 아닌 접촉을 통한 새로운 혼합형의 방언 생성을 밝혀 줄 수 있는 주요한 모델이 된다.

둘째, 제주방언은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어가 많이 남아있는 방언으로 알려져 왔지만 제주방언에 고어가 특별히 더 많다고 하기보다 육지 방언과의 접촉을 통한 독자적 발달을 보인 형태가 매우 풍부하게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제주방언이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언 차이가 많다고 하는 관점은 동일 언어에서 분화되었다는 관점이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원래 달랐던 언어에서 오랜 역사 동안 접촉과 이주와 관할로 인해 동질화가 진행되어왔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현재적 관점에서는 한국어족에 속한 하나의 언어 분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원에 관한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제주방언에 ISO 코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키백과는 ISO 코드가 없는 언어에 대한 위키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왔는데 2014년에 제주방언에 jie라는 코드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개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주말 위키 신청 허가에 대하여 위키재단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모어 화자만 확보를 한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셋째, 제주방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어의 변종으로 제주방언은 단모음체계에서도 표준어와 달리 /으/(골대, 무디, 부름, 추다)가 존재하는 대신 /위/, /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는 [왜](쥬스랑, 쥬:, 웬광이)로 /위/는 [우^ㅅ이](구^ㅅ이빔)로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와 /애/도 변별성이 약화되고 있다. 어두음절에서 구개음화(지프다, 질매, 성제, 숭)도 실현되며,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예(궤기, 튀끼)와 전부모음화의 예(실피, 실:게, 직스^ㅅ하다, 장:땡)도 있다. ‘ㅏ’에 대응되는 ‘ㅓ’(그실, 저슬, 그세)이나 어중 ‘ㅓ’이 실현되는(심그다, 땡기다) 등의 고어형에 대응 변종이 많이 나타난다.

어두 경음화가 아닌 유기음화가 실현되는 ‘털대(떨다), 착콩(짜콩), 촌물(짤물)’의 예는 제주방언에서 세력을 가진 변종이다. 어말에서 정지음(ㅂ, ㄷ, ㄱ)이 외파음으로 개음절화(보끄다, 바트다, 나끄다, 더프다)하여 제주방언의 특색을 보여준다.

어법적으로도 주격에 모음 뒤에 ‘-래(리)’가, 속격에 ‘너의’가 ‘느+zero(이)(느것, 느신, 느떡)’로, 혹은 ‘-네’(느네, 조카네), 대격으로 ‘-얼, -렐, -르’(모살쫄얼, 나빌), 부사격으로 ‘-의, -으게’(무실의, 서귀포레, 바당더레)가 공동격에 ‘-왕, -광’(겡이왕 패기왕)이 사용되고 있어 표준어와 차이가 많이 난다. 특수조사에도 ‘-영, -이영’(나영 가이영)이 ‘-이랑’에 대응되며 강조의 ‘-야, -이야’도 ‘-사, 이사’(느리사, 밥이사)로 실현되며 명사뿐만 아

나라 동사나 형용사에도(와사, 아프므사) 사용된다.

선어말어미 체계에서도 현재 시상에 ‘-ㅁ-’이(감째, 잡암서), 미래 시상에 ‘-카, -커, -코, -쿠’(가킨가, 가커라, 가쿠까, 호코, 호케민, 호케질랄, 호카푸뎡, 호쿠텐)와 같이 실현되어 표준어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어말어미에서 ‘-우다’(겹이우다), ‘-수다’(그릅수다)와 ‘-ㅁ네다’(모름네다), ‘-ㅁ디다’(흙디다)가 표준어 ‘-요’에 대응되는 ‘-예’(잡암신게예)와 ‘-서’(어섬서, 아팍서)가 ‘-오/소’에 대응되는 ‘-메’(추우매, 안되메)가 ‘-니다’에 대응되는 ‘-짜’(올라감짜)가 ‘-노라’에 대응되는 ‘-고라’(호고라)가 사용된다. 의문형어미에서도 ‘-ㅁ니까’에 대응되는 ‘-우까(파)’(붓이우까), ‘-수까(파)’(가밥수까), ‘-수광’(흙수광)이 쓰이며 ‘-누냐’에 대응되는 ‘-디아’(입어반디아)가 실현된다. 명령형어미에는 ‘-ㅁ시오’에 대응되는 ‘-ㅁ써’(받음써)와 ‘-제’(갑씨제)가 사용되며 청유형어미에는 ‘-ㅁ주’(갑주, 가주)가 쓰인다.

접속어미로는 ‘-고’에 대응되는 ‘-곡’(부름 불곡).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아서’, ‘-고서’에 대응되는 ‘-그네’(떡어그네), ‘-멍’(자멍)이, ‘-영’(호영), ‘-니까’에 대응되는 ‘-나네’(보나네)와 ‘-난’(나시난)이 쓰인다. 의도의 ‘-려’, ‘-려고’에 대응되는 ‘-쟁’(가쟁), ‘-다고’에는 ‘-텐, -뎡, -엔, -앵’(가쟁, 떡쟁, 간텐, 가키앵)이 쓰인다.

어휘적인 특징은 제주방언의 조어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절도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활어휘가 육지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의미 영역이나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 또는 몽골어 등의 외래어로 인해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타난다. ‘패마농(파), 대사니(마늘), 썩마농(달래)’을 총칭하는 말(‘마농’)이 있다든지, ‘새끼줄’의 방언형이 굴기에 따라 ‘배(大), 네끼(中), 노(小)’로 분화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의미영역을 달리하는 경우다. 아울러 ‘구덕(바구니의 일종), 올레(골목에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짧은 골목), 허벅(물동이의 일종)’ 등처럼 제주 지역에서만

발전되는 특수어도 그 수가 상당하다.

넷째, 한편 제주방언은 대방언권의 하나로, 방언권 내의 언어적 동질성이 매우 강하다. 전통적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 방언과 산남 방언으로 구분해 왔지만, 다른 방언권의 경우와 비교할 때, 두 방언의 차이는 하나의 소방언권을 하위 구획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제주방언은 '세대'에 따른 방언차를 매우 크게 드러내는데, 이는 대부분의 젊은층 화자들이 전통적 제주방언 대신에 표준어의 한 변종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직 제주방언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신비에 가려져 있다. 김공철(1999:26-30)에 의해 유구어와의 친족관계와 아이누어가 한반도와 구주를 거쳐 제주방언과 접촉하였다는 가설 위에 고구려어와 가라어와의 친근성을 제시한 바가 있지만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유네스코와 국제표준화기구, 『에스놀로그』(2011)에서는 제주어를 방언보다는 하나의 별개 언어로 분류하여 독립적인 언어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상고 제주방언의 기원 문제와 한반도나 일본, 유구, 아이누, 만주어와의 기원적인 문제도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태학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관한 위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나 언어 다양성의 감소에 관한 위기에는 둔감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방언의 절멸로 인해 초래되는 문화의 퇴조와 문화적 자산의 손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도 방언의 절멸위기에 대응해야만 한다. 이것이 문화다양성과 언어다양성 그리고 창조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길일 것이다. 이를테면 2007년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지역어가 절멸해가고 있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 <제주방언 보존 및 육성 조례> 제정과 재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치 정부 스스로 지역어 보존과 보육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강창일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표준어가 확산되고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제주방언과 같은 지역어가 사멸해 가는 위기를 맞고 있음.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기 전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얼과 혼으로서 지역어의 보존은 바로 국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 창달이 가능하고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이에 지역어정책의 수립·시행, 지역어 능력 향상, 지역어 연구·조사 등을 통한 지역어의 보존과 육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여 오랜 전통과 뿌리를 갖고 있는 제주방언의 절멸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언어는 그 지역의 지식 정보의 보고인 동시에 정체성을 드러낸 문화발전의 본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입법화된다면 곧 바로 국립방언연구원의 설립과 유치가 가능한 것이다.¹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법안이 국회에

¹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각 지방의 지역어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어보존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2년마다 지역어 보존과 육성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를 해당 지방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어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어보존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역어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